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시(남월차고지방향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내리면 됩니다)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11번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512번
- 대전 복합터미널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 서대전역네거리 정류장 : 513번
- 정부청사(남문)터미널 정류장 : 108번

자가 운행 시

- 남대전 톨게이트에서 대전역 방면 1.6Km 전방 오른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남대전 톨게이트 방면 1Km 전방 왼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34704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TEL 042.271.7053 FAX 042.271.5775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E-mail hkw7053@hanmail.net

www.hyokwang.or.kr

Vol 31
2020 효광원

한마루

한마루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출하다" 는 순 우리말입니다.

꿈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곳! 여기는 효광원입니다!

효광원

효광원 활동모습

Photo

10월

09.27~28 템플스테이

10.07 도박중독 집단프로그램

10.16~18 국토횡단3기 (삼척~강릉)

10.18 비자회자원봉사

10.22 멘토링 프로그램

10.22 소방안전교육

10.22 영어 세미나 참여

10.22 퇴소자 장학금 지급

11월

10.23~24 보호자 캠프

11.15~16 교구김장 자원봉사

11.16 회호대회 참여

11.20 효광원 김장

11.2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협약

11.28 효우리 세례식

11.29 양영례 조리원 정년퇴임

12월

12.07 문창동성당자원 심검실 파티

당신을 갈망할 때 찾고 찾을 때까지 갈망하며 사랑할 때 찾아내고 찾아낼 때 사랑하게 하소서. -성 안셀모

참된 기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십시오. -성 마카리오

효광원 활동모습

12월

12.11 POP실기시험

12.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현장학습 뮤지컬 관람

12.24 사회복지시설평가 우수프로그램 선정

12.24 성탄전야 미사

12.30 신금순 조리원 정년퇴임식

12.30 특별활동 연극반 공연

작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성 바오로 사도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효광원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과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예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분들의 정성을 이곳에 올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 후원금 내역

7월	1일	김현 신부
	2일	이형석
	8일	김수영
	9일	김은향
	10일	코벤아이러브피플
	18일	커피후원금
	19일	신혜영
	23일	주혜진
	25일	문무일
	29일	대전사회복지협의회
	30일	강지향
8월	1일	김현 신부
	2일	이형석
	6일	김수영
	12일	코벤아이러브피플, 이경훈
	20일	신혜영
	23일	주혜진
	26일	문무일
	29일	이매자
	30일	대전사회복지협의회, 강지향
9월	2일	김현 신부, 이형석
	6일	김수영
	10일	코벤아이러브피플
	14일	이경훈
	17일	최규택
	20일	서부지구 사회복지분과, 신혜영
	22일	주혜진
	24일	대전사회복지협의회
	25일	문무일
	30일	강지향
10월	1일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김기덕
	2일	이형석
	7일	김수영
	8일	물사랑나눔단
	10일	코벤아이러브피플
	13일	이경훈
	18일	신혜영
	21일	김현 신부, 최규택, 띠앗축제
	25일	문무일, 주혜진
	28일	띠앗축제
	29일	대전사회복지협의회, 김재형
	30일	강지향
11월	4일	이형석
	11일	코벤아이러브피플
	12일	이경훈
	19일	최규택
	20일	김현 신부, 신혜영
	24일	주혜진
	25일	문무일
	27일	대전아동복지연합회
	29일	대전사회복지협의회, 강지향
12월	2일	김현 신부, 이형석
	6일	김수영
	10일	코벤아이러브피플
	12일	최윤영, 이경훈
	17일	대전사회복지협의회
	20일	신혜영, 최규택
	23일	주혜진
	26일	문무일
	30일	물사랑나눔단

* 후반기 후원금 총액 : **10,343,400원**

지혜는 진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2019년도 하반기 후원물품 내역

월	일	내역
7월	3일	(주)고기랑(주식)
	5일	육영석/조광상회(위생용품)
	6일	성심당(간식)
	8일	김명종(부식)
	10일	성심당(간식), 카리타스 유통(후식), 산내복지만두레(간식)
	16일	김용욱/광산기업(간식)
	17일	김명종(부식), 대전가톨릭농수산물 지원센터(간식)
	22일	이규홍/제주상회(후식)
	29일	김성훈/하이촌(부식), 더혜피백(의약품)
	31일	사회적기업온(부식), 김명종(부식)
8월	5일	성심당(간식), 오리온재단(간식)
	8일	카리타스유통(간식)
	13일	육영석/조광상회(위생용품), 이규홍/제주상회(후식),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부식)
	14일	산내복지만두레(간식)
	19일	남상성/대건(생활용품)
	20일	성심당(간식)
	22일	(주)고기랑(부식)
	26일	천주교 대전교구 한끼100원 나눔운동본부(부식)
	27일	서울분류심사원(간식)
	28일	정류장약국(의약품)
	30일	대전시청(상품권)
	31일	김성훈/하이촌(부식), 김남인(부식)
9월	2일	이규홍/제주상회(후식)
	3일	대전지법 가정지원 (부식 및 간식)
	4일	(주)코스트코 코리아(부식, 생활용품)
	5일	계룡건설(부식)
	6일	김명종(부식)
	9일	가오동성당 사회복지분과(후식), 동구의회(간식)
	10일	동구청(간식)
	11일	산내복지만두레(간식)
	20일	(주)고기랑(부식), 서부지구 사회복지분과(후식)
	28일	김성훈/하이촌(부식)
10월	2일	박지훈/비비큐치킨앤비어(간식), 정용희(간식)
	4일	육영석/조광상회(위생용품)
	5일	김미경/대천성당(부식), 박찬(생활용품), 김홍기(생활용품)
	8일	산내복지만두레(간식), 정류장약국(의약품), 서울가정법원(간식)
	10일	정류장약국(의약품)
	11일	이규홍/제주상회(후식), 한국아동복지협회(부식)
	19일	성심당(간식)
	31일	김성훈/하이촌(부식)
11월	7일	거룩한말씀의 수녀회(부식)
	11일	성심당(간식), 한준희(부식) 민은숙(부식), 권선희(부식)
	13일	산내복지만두레(간식)
	18일	이규홍/제주상회(간식), 육영석/조광상회(위생용품)
	19일	천안 두정동성당(간식)
	30일	김성훈/하이촌(부식)
12월	1일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부식)
	2일	변창전/대성청과130(후식)
	3일	성심당(간식), 박지훈/비비큐치킨앤비어(간식)
	4일	서울가정법원(부식)
	5일	육영석/조광상회(위생용품)
	7일	강만식/남대전고 교장(후식)
	9일	희망을나누는사람들(간식)
	11일	변창전/대성청과130(후식), 산내복지만두레(간식)
	12일	동구청(마스크)
	13일	가오동성당-사회복지분과(후식)
	16일	(주)유진기업(다단식밥솥), 성심당(간식)
	17일	김광혜/대산포크(부식), 문창동성당(후식,부식)
	19일	오리온재단(간식)
	26일	이규홍/제주상회(후식), 사회보장정보원(상품권)
	27일	서울가정법원(부식)
	28일	김용권/육혜공(부식)
	31일	굿모닝무역(축구장비) 김성훈/하이촌(부식)

자원봉사자

축구 김정섭 **POP** 김은실, 김영미 **이미용 자원봉사** 김경희, 강계화 **학습지도** 최선희

어머니와 요리교실 봉사자 만년동 성당, 도룡동 성당, 판암동성당 자매님들

겨자씨 검정고시 학습 이한나, 이선영, 한종헌, 백종민, 박으뜸, 황종배, 이재현, 홍민기, 김호빈, 나하윤, 이봉이, 전준길, 김현주, 이예성, 임효진, 김재은, 정민아

학습연합회 검정고시 학습 이봉환, 정경희, 조혜진, 이지연, 김기정, 최강, 강선숙, 최경진, 한왕호, 안지순

2019년 보호치료시설효광원 후원금 세입·세출 총괄내역

- 사 업 명 : 전체
- 자금원천 : 후원금
- 검색기간 :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세입과목 관	항	목	세 입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29,618,000
		비지정후원금	12,651,150
		합계	42,269,15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2,027,395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 이자수입	10,337
[세입계]			44,306,882

세출과목 관	항	목	세 출
사무비	기타운영비	회의비	210,000
	운영비	여비	0
		수용수수료	1,123,000
		공공요금	161,620
			1,284,620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6,891,000
		시설장비유지비	4,119,000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250,000
		수용기관경비	0
		피복비	0
		의료비	1,504,740
		직업재활비	0
		특별급식비	309,320
		연료비	1,048,918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13,991,410
		교육재활 사업비	9,702,000
		자립지원사업비 사업비	786,300
		도서구입비	0
	잡지출		64,330
[세출계]			41,446,258
차기이월금			4,145,244
[총계]			44,306,882

CONTENTS
목차

HYOKANG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03 교사 글_ 장승수 교사
05 아동들의 글_ 김○석, 이수완, 한민우
08 허그캠프 소감문_ 장○현(모)
09 2019 기획사업
- 2019 청소년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
- 2019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19 국토횡단 '독도에서 백령도까지 가온길을 찾아서'
- 2019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정신·심리장애아동 치료비 지원사업
- 2019 허그캠프
- 2019 '2019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난방비지원사업
- 2019 특수차량 25인승 버스 지원사업
12 효광원 주요 프로그램
13 효광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14 효우리 이모저모
16 효광원 활동 모습
21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23 후원 신청 안내

한마루 Vol. 31
발행처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전화 042.271.7053 팩스 042.271.5775 지도신부 김헌 마태오 발행인 김정엽 편집 남광규
E-mail hkw7053@hanmail.net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디자인 창문(042.254.8977)

보석처럼 반짝반짝

글 | 장승수 교사

안녕! 효우리, 그리고 효광원을 사랑해 주시는 한마루 독자 여러분.
다른 직업교육 기관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오다 효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하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2019년 10월 초에 중년 신입 교사로 입사한 장승수입니다.

벌써 쥐띠 해인 경자년 2020년 1분기도 번개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지 아쉬움이 아닌 원망으로도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 6개월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요!
하하하, 미안 효우리, 나중에 나이 들면 이해 될 겁니다.

우리 효광원 홈페이지를 열면 "꿈과 희망이 보석처럼 반짝반짝"하는 문구가 시선을 잡습니다. 보석의 황제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며 10억년 이상의 상상하기도 어려운 오래전에 만들어진 물질이자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물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석은 볼품은 없지만 수천 번의 갈고닦는 인고 끝에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의 보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효우리들도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소중한 청소년들로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며 지난 과거의 모난 모서리를 깎아내는 연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될 수 없고 현재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지 그것에 얽매여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보장은 현재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미래의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효광원은 목표를 향하여 가는 도중 잠시 쉬어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형과 아버지 같은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를 받으며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간다면, 과거를 지뢧대 삼아 더 큰 인생의 길을 걸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을 덜 받을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작은 일들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작의 은수자 까를로 까레또

"치료공동체"는 전통적인 장기 치료공동체 모델과 사회 학습이론에 바탕을 두고 효광원을 이끌고 가는 기본 틀입니다. 공동체가 가지는 중요한 치료적이고 교육적 요인들을 통하여 개인의 변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효우리들은 서로 돕고 배려하며 "우리"라는 공동체 힘으로 개인의 변화를 도모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효우리 생활철학 중 "정직하라", "네가 한 만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가장 좋아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들에게도 가장 중요시 하며 지도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누구도 욕할 수 없으며, 세상은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말처럼 자기가 행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는 인공지능(AI)에 의해 자율주행차가 굴러가는 등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았던 고차원적 환경인 4차산업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효우리들은 아주 작은 과거의 과오를 자책하며 현실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넓고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 현실을 즉시하고 앞에 보이는 청소부터 깨끗이 하고 모닝미팅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 앞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입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약속하겠습니다.

효광원에 머무르는 동안 항상 건강을 유지하며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갈고닦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나또한 그렇게 되도록 끝없이 밀어주고 이끌어 주겠습니다.

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6개월을 돌아보며...

글 | 학습반 김○석

안녕 효우리 학습반 도우미 김○석입니다. 저는 끝없는 방황으로 결국 부산가정법원에서 5·6호 처분을 받고 이곳 효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사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서 생활을 잘하기는커녕 방황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도중 저희 가족이 저를 보러 먼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준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몇 번이나 안겨 드렸다는 생각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저 스스로도 변화해야 된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체험, 스키캠프, 해양캠프등 여러 가지 캠프를 참여하면서 인내심과 참을성을 정말 많은 것을 기른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방황으로 실수를 저질러 효광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나무라거나 윽박지르기보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효광원을 4달반 살면서 기억에 남았던 것은 12월20일 저녁에 맛있는 뷔페를 해주셔서 맛있게 먹고 연극을 보러 간다는게, 마치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온거 같은 느낌이 들어 괜히 행복해 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의 외출이라 너무나도 설렜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는 상위지위자 20명과 함께 스키캠프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에 선발이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솔직히 효광원에 온 저는 저 자신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 동 떨어져 격리되어 생활하는게 힘들고 불평만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바깥 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휴식을 느껴보니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 10대란 시절은 아쉽지만 짧고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효광원에 있는 동안 앞으로를 위해 짧지만 목표도 세우고 이뤄 보려고 합니다. 양식 요리사를 목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저의 미래의 목표나 계획을 세워 변화된 모습으로 저희 가족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6개월 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많은 생각과 느낌을 받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저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20살을 지내며 정말 투정도 많이 부리고 했었는데, 저의 성장을 위해 여러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효광원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앞날을 기대해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Swanning
여행하다

글 | 이·미용반 이수완

안녕하세요. 이·미용반 이끄미 이수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떨리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합니다. 5개월 반 전쯤, 제가 효광원에 들어와 입소 인사를 하며 각오와 다짐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끄미로 거듭나 이렇게 퇴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우선 지금의 저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항상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수녀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녀님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웃으면서 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잊지 못하는 한 분, 영양사 선생님!! 제가 상담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진심어린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호림 선생님과 함께 반주한 6개월의 시간을 통해 삶에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6개월간 효광원에서 있었던 저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판사님께서 반성문을 한장밖에 안 썼다는 이유로 더 반성하라고 5·6호 처분을 받고 효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정말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이곳에서 어떻게 보낼지 정말 막막했죠. 그러나 많은 실수와 좌절을 반복한 신입반 생활을 마치고, 어느 정도 효광원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모닝미팅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지위를 올리게 되고, 중1때 이후로 하지도 않던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되고, 자격증 시험도 보게 되었죠. 이렇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다 보니 어느새 퇴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효광원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한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임종송 선생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어느날 선생님께서는 저의 이름의 뜻과 영어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제 이름은 빼어날 수에 완전할 완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Swan을 사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 선생님께서는 "수완아 이름처럼 수완있고 여유있는 삶을 살아라. 백조는 물위에서는 여유로워 보일지라도 물 안에서는 발을 쉴 새 없이 구르고 있단다. 이름에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광원에서는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후회와 다짐도 수없이 반복하게 되었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달렸고, 마침내 정상에 다다랐을 때에 기분은 한 없이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전하든 나쁜 짓만 아니면 다 해보세요. 또 여러분 화가 날 때는 한 발자국 물러나 참아보고, 안되면 두 발자국 물러나 인내하세요. 한 발자국 물러나 참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두 발자국 물러나 인내하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발자국 물러나 있으면 완벽한 사람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의 담임선생님이신 임종송 선생님께 짧지만 사랑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생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제가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때는 선생님과 제자 관계가 아닌 어른과 어른,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참된 기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십시오. –성 마가리오

따뜻함을 기억하며...

글 | 벤자민 반 한민우

안녕 효우리 벤자민반 이끄미 한민우입니다. 제가 소식지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제가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수녀님께 고마운 점이 많아 수녀님께 편지를 써볼까 합니다. 일단 6개월간 생활하면서 느낀점이 많아 느낀점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7월18일 5·6호 처분을 받아 효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서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좋은 형들도 있었고 무서운 형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형들에게 기가 죽은 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다보니 어느새 기가 죽진 않았고 적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녀님 상담을 통해 많이 적응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응을 하고 생활하다보니 지금은 퇴소가 몇일 남지 않은 이끄미가 되었습니다. 신입때 생각을 하면 벤자민인 제가 이끄미를 달수 있을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녀님의 도움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끄미가 아닌 적응을 하지 못한 효우미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녀님 덕에 교리를 받아 세례도 받고 미사 해설도 경험해 보고 복사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수녀님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매주 생활하는건 괜찮냐고 매일 물어봐 주시고 과자도 주시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수녀님께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O. 수녀님께

바울라 수녀님 저 민우에요. 퇴소를 하게 되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수녀님 제가 처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 매일 같이 상냥하게 대해주시고 일주일에 한번 상담도 해주시고 아픈곳이 없는지 챙겨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처음엔 적응도 힘들고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수녀님의 상담을 통해서 효광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도 쉽게 적응할수 있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도 좋아지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던거 같아요. 저는 효광원에서는 수녀님이 가장 좋았습니다. 만약 효광원에 수녀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마음적으로 약하고 용기도 없는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거 같아요. 수녀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도 불러주시고 저를 위해 애써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또한 미사 해설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을 할 땐 말을 많이 더듬긴 했지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소를 해도 수녀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경험들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녀님도 저 한민우 기억해주세요. 저 처음 왔을 때 나갈 날이 안보인다고 농담을 하셨지만 수녀님은 제 인생길에 있어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 같아요. 효광원 생활하면서 "민우야 상담하자"라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퇴소때까지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효광원에 다시 오게 된다면 좀 더 나은 모습과 점잖고 바른 사람이 돼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였습니다.

존사랑과 진실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허그캠프를 기억하며 I

참여일 | 2019년 12월 18~19일
아동 성명 | 정ㅇ호
보호자 성명 | 장ㅇ현(모)

안녕하세요.^^ ㅇ호 엄마입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탄치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지 못하고, 사춘기를 겪으며 힘들어하는 아이를 원망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키우고 있는 저에게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사실 내심 이곳에 올 때도 아이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아닌, 제 자신의 대한 자책이 들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어느덧 퇴소일이 가까워지고 '허그캠프'에 참가 하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어릴 때처럼 표현이 쉽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민망하고 아이가 안 받아주면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앞서다 보니 말이에요. 그러다 캠프에 와서 ㅇ호와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정말 시작이 어려운데, 수녀님 선생님들의 뜻 깊고 정성어린 프로그램 덕분에 그 어려운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든 사춘기를 겪는 동안 엄마인 저도 지치고 힘이 들었는데, 새삼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희 아들을 다시 찾아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밖에 표현이 되지를 않네요. 효광원 원장님, 수녀님, 모든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겠습니다. 이곳 캠프에서 소통하고 표현하고 아이의 보석 같은 마음을 보았으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참된 기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십시오. ~성 마가리오

2019 기획사업 I
청소년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관	동행복지재단, 한국아동복지협회
사업목적	보호청소년 중 저연령(만12세~14세) 아동들과 학습 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상급학교의 진학을 도와 미래지향적인 꿈과 희망으로 개인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 이바지 할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사업기간	2019년 4월 ~ 10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2019 기획사업 II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목적	예술강사를 지원하여 특정예술 장르의 기능습득에서 나아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개인의 일상과 삶을 각 장르별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풀어내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잠재적 소질 발굴 및 계발, 문화예술교육의 욕구 충족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을 덜 받을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작은 일들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막의 은수자 카를로 까레또

2019 기획사업 III

국토횡단 "독도에서 백령도까지 가온길을 찾아서"

지원기관	유한킴벌리 대전공장, 대전사회복지협의회
사업목적	보호청소년들의 국토순례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험형프로그램으로 자연과 더불어 호연지기를 배우고, 심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도록 함. 또한 국토순례 중 역사적인 장소를 거치면서 선조들의 지혜 뿐 아니라 애국심을 향상시켜 반사회성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사업기간	2019년 5월, 10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2019 기획사업 IV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정신·심리장애아동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복지협회 / 대전광역시, 대전아동복지협회
사업목적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통합사례관리 개입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더불어 아동의 원가족, 시설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의 전인적 성장 도모함.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지혜는 진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2019 기획사업 V

허그캠프

지원기관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대전아동복지협회
사업목적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인 허그캠프 참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들의 캠프참가 의지를 고취시켜 가족기능 회복과 강화를 목적으로 보호자 캠프 참가 보호자에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대상자 (보호청소년과 보호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보호청소년과 보호자)

2019 기획사업 VI

'2020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난방비지원사업

지원기관	구세군자선냄비본부, 대전아동복지협회
사업목적	소외계층의 차가운 마음을 작은 손길 하나가 아동들에게 희망이 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따뜻한 마음씨로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2019 기획사업 VII

2019년 특수차량 25인승 버스 지원사업

지원기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목적	2016년부터 3년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재원아동들에게 사업 특성을 반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효광원 보호치료사업 수행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31일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또는 보호소년의 보호자

당신을 갈망할 때 찾고 찾을 때까지 갈망하며 사랑할 때 찾아내고 찾아낼 때 사랑하게 하소서. -성 안셀모

효광원 주요 프로그램

01 동계·하계방학 레포츠데이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서는 동계·하계방학 중 레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와 휴식을 제공함으로서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레저 스포츠 및 취미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학프로그램.

◆ 매년 7월 ~ 8월(하계방학), 12월 ~ 1월(동계방학)

02 海바라기 캠프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양과 해양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관련 지식을 배양하고 관련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동시에 현장체험 활동으로 재원 아동들의 심신단련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박 3일간 진행하는 해양 힐링캠프.

◆ 매년 1월 ~ 2월 중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03 국토종단 및 횡단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서 보호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더불어 호연지기를 배우고 심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의 자세 등을 배워 보호치료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연간 2회 실시 2박 3일(5월, 10월)

04 보호자 캠프(HUG CAMP)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보호자가 효광원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보호자 캠프를 통해 교육이수와 함께 캠프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을 기하는 프로그램.

◆ 매월 1회 1박 2일간 실시

05 대전학원강사연합회 학습지도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 기초학습 지도하는 프로그램.

◆ 연중 과목별 주 1회

06 겨자씨 검정고시 학습

충남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보호소년들의 검정고시 대비 학습지도 프로그램.

◆ 연중 주 1회

07 어머니와 요리교실

균형 있고 영양가 높은 수제간식을 함께 만들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

◆ 매월 주 2회

효광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01 템플스테이

한 때의 실수로 인해 실패와 좌절, 밑바닥의 인생까지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고,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 잘 될 것이라는 주문처럼 스스로를 위로하여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1,500년 전통과 역사를 함께 보고 배움으로 역사적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힐링 프로그램.

◆ 연 2회(4월, 9월)

02 미디어테라피

미디어 테라피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찾아 과거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심리정서수련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3월, 9월)

03 성교육 치료집단

성경험 또는 성관련 위험군을 대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하여 왜곡된 성의식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지지하는 치료 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3월, 9월)

04 도박중독 치료 집단

도박 폐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밖 고 위험 청소년에게 도박행동 인지, 정서·욕구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는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하도록 안내하여 퇴소 후 맞이하게 될 고 위험 도박 상황에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역량 강화 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6월, 10월)

0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두드림(Do Dream)

꿈: 드림,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 연 3회 실시(4월, 8월, 11월)

0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 'CAP+'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진로고민을 해결하고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취업지원이 되도록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 연 2회 실시(6월, 10월)

효우리 이모저모

우리 효우리들이 효광원을 통하여 사랑과 희망을 배우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해양캠프

오월드 방문

효광원 김장

숲체원

하계 래프츠 데이

생일자 파티

템플스테이

세례식

영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날마다 쉬지 않고 조금씩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성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가경자 알렉리오세

효광원 활동모습

Photo

7월

07.03 대전교구 서부지구(사회복지 분과장) 후원물품 지급

07.04 생일자 파티(십습자 방문)

07.22 법동성당 미용봉사

07.26 세례식 사진

07.26 세례식 사진

07.31 더 해피맥 MOU체결

8월

08.08 카리타스 유통 빙수 봉사

08.08 하계레포츠데이

08.09 정기외출 아동인솔

08.13 오월드 견학

08.14 광주법원 엽서공모전 응시

9월

09.02 효광원 개학식

09.04 대전가정법원 기관방문및 후원물품 지급

09.10 엽서공모전 사상식(광주법원)

09.16~18 해양캠프 참여

09.20 효광원 개원기념일 및 영명축일

주주의 기도는 단순하고 깊이가 있어 모든 기도 중에 제일 훌륭한 기도이며 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

이성의 권고에 귀 기울이고 늘 그 빛과 이끄심을 바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